

국어연구소

국어연구소 설립 경위



(국어연구소 헌관식장면, 좌로부터 金亨奎 국어연구소 소장, 沈鍾燮 學術院會長, 1984. 5. 10)

국어는 우리 국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국어에 대한 연구나 政策의 수립은 비단 몇몇 학자들이나 學術團體에서만 수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國家的次元에서 수행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16~17세기 이래로 자신들의 國語를 統一, 整理, 醇化해 오고 있으니, 가령 프랑스의 翰林院(教育省 소속)이나 英國의 言語科學研究所(教育科學省 소속) 등이 그것이다. 가까이 日本에서도 1949년에 國立國語研究所(文化廳 소속)를 설립하여 研究員만 80여명의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世宗大王 때에 이미 諺文廳을 설립하여 正音 및 正音에 관계되던 일을 해 나갔으며, 또 集賢殿 學士로 하여금 訓民正音 創製 및 漢字音 整理事業을 하도록 하는 語文 政策을 국가적으로 수행했었다. 그러나 世宗 때의 이러한 사업들은 그 후 계속되지 못하고 우리 말과 글은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새로이 自主意識이 싹트게 되자 다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며, 나라에서는 1907년 學部(지금의 文敎部) 내에 國文의 原理와 沿革 및 現在使用과 將來發展 方法 등을 연구할 목적으로 國文研究所를 설치하였으며 이 國文研究所는 이후 23회에 걸쳐 國文의 年覽에서 철자법에 이르기까지 항목을 토의해 왔으나 亡國으로 큰 빛을 보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이후 日帝時代에서는 朝鮮總督府에서 조선어 교과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행한 綴字法 제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朝鮮語研究會(1921, 1931년 朝鮮語學會, 1949년 한글학회로 명칭 변경), 朝鮮語學研究會(1931) 등의 민간 단체에서 국어의 表記法 統一運動, 조선말 사전 편찬 사업 등의 국어 연구 및 국어 운동을 해 왔으나 이마저도 日帝의 國語 抹殺政策으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어 오던 중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 후 학계의 분열과 대립, 통일된 語文政策의 결여로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는 국어 정책에 휩쓸려 왔으며 분열된 여론이 수시로 들끓듯이 일어났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한글 專用論과 한글·漢字混用論의 대립으로 인한 政策의 갈등이나 1950년대의 한글 파동, 1960년대의 文法敎科書 파동 등은 다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어 생활은 크게 흔들렸으며 2세를 교육시킬 통일된 文法敎科書도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국가에서도 國語審議會나 國語醇化運動協議會와 같은 기관을 文敎部 안에 두어 국어의 연구 및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해 왔으나 이들 기관이 非常設 諮問機構이어서 사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어문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뜻있는 學者나 관련 학회에서는 수시로 국가적 차원의 國語研究所 設立을 건의해 왔으니 근래에도 1976년 5월에 國語學會, 韓國語文敎育研究會, 국어국문학회, 震檀學會 등 9개 관련학회가 文敎部 직속기구로 國語研究院을 설치할 것을, 1983년 5월에는 韓國語文敎育研究會(代表 李熙昇), 국어국문학회(金錫夏), 國語學會(金亨奎), 韓國國語敎育研究會(李應百), 語文研究會(都守熙), 東岳語文學會(李東林), 韓國文人協會(金東里), 韓國放送作家協會(兪湖), 한국독서교육연구회(홍웅선), 대한출판문화협회(민영빈), 한국글짓기지도회(李熙昇) 등 이상 11개 관련학회가 國務總理의 직속기관으로 國立 國語研究院의 設置를 建議한 바 있다.

또한 言論界에서도 계속적으로 社說 등의 기사를 통하여 國語研究所 設立을 건의해 오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文敎部에서도 國語研究所의 設立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1983년 4월 21일 국회에서 文敎部長官(李奎浩)이 學術院 내에 國語研究院 設립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國語研究所 設립이 구체화되었다.

1983년 5월 文敎部에서는 學術院에 국어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치 계획을 송부하였으며 學術院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1983년 10월 정부예산으로 1억 4천여만원이 국어연구소 보조금으로 확정된 데 따라, 1984년 學術院 人文科學 第二分科委員會를 중심으로 學術院 안에 非公式機構인 국어연구소 설치에 대한 규정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여 3월 學術院 任員會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을 통과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이달 初代 國語研究所 所長으로 學術院 元老會員인 金亨奎 博士를 선임하고 연구소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1984년 4월 文敎部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천여만원을 보조받고, 이에 따라 전임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하고 安國洞 海影會館에 사무실을 구하여 1984년 5월 10일 마침내 개소하게 되었다.

(구체적 경위는 국어연구소 設立 日誌를 참조할 것)

이처럼 국어연구소는 나라가 독립하여 우리 말을 되찾은지 거의 40년만에 어렵게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學界 및 言論에서는 비록 늦었지만 연구소가 문을 연 데 대하여 많은 축하와 기대를 보내고, 政府 當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실로 국어연구소가 문을 연 이즈음 우리 앞에 놓인 국어 문제는 너무나 많다. 진진한 국민 정신의 결여로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수용하고 국적불명의 말로 상품의 이름을 지으며 저속한 말이 도처에 넘쳐 있다. 또한 통일되어야 할 수많은 국어 문제들이 숙제로 놓여 있으며, 北韓의 言語 異質 化政策에 따라 걸잡을 수 없이 달라져 가는 북쪽의 우리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의 해결은 개인이나 연구 단체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며, 先入觀이나 私見 없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어연구소에 대하여 기대하는 신문사설 2편을 실는다.

語文研究 1億 4千萬원

국어연구소가 생긴다고 한다. 문교부는 내년 1월에 語文연구소를 학술원 산하에 설치키로 확정,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발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7일 1면).

나라의 말과 글을 갈고 닦는 일의 중대성과, 오래전부터 대두됐던 연구소 창설 논의에 비추어서는, 때늦음이 한탄스러우나, 이제라도 우리말, 우리글 연구의 기틀이 갖춰짐은 경하스런 일이다. 내일 한글창제 537년에 즈음한 朗報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가다듬는데 소홀했다는 말을 들어도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國學 관계 학술단체 10여곳에 語文 연구회가 있고 문교부에 국어 심의회가 있었으나, 語文정책의 난맥으로 교과서에까지 옳고 그름의 차이가 끼어 들고, 말과 글에 관심 있는 이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 사정은 현행 中高校 문법 교과서가 5종이나 되고, 그것이 서로 상치되는 이론을 펴서, 표준어·맞춤법·띄어쓰기·외래어 표기에까지 혼선을 빚은 데 잘 드러나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 말투가 틀을 벗어나고, 방승에마져 뿌리 모를 말과 사투리가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모두는 결국 語文 정책 不在에 연유하고, 그것은 다시 語文 연구의 미흡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가졌다는 프랑스에는 아카데미·프랑세즈가 프랑스 말을 다듬고 발전시키며 통제하는 일을 전담한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프랑스 말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프랑스 말과 글을 다듬어가는 기능과 권위가 대단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이다.

영국·이탈리아 등에도 전담 연구 기관을 두고 자기나라 말과 글을 다듬고 가꾸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40여년 전부터 국립국어연구소를 설립, 일관성있는 어문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문교부가 추진중인 내용은 語文연구의 요긴함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의심마저 일게 한다.

정부의 재정건축방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로되, 연구소의 창설과 발족 첫해의 예산이 1억 4천만원이라니, 噴飯감 아닌가. 발족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그 연구소에 기대할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문교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린다고 했었지만, 이리다가는 또 하나의 有名無實—하잘 것 없는 군더더기 연구소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 걱정이 朽憂아님은, 지금 정부 산하의 12개 研究院이나 기타 연구소의 예산을 집작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 연구소가 학술원 산하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학술원의 권위나 역할을 미심쩍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연구소의 독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칫 지금까지의 語文정책을 혼란시켰던 學問의인 매립이 그대로 연구소 활동에 계승될 염려가 없지 않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소의 예산이 첫해부터 대폭 증액되어야 함과 아울러, 그 자리가 대통령 직속이거나, 아예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 社說, 1983.10.8)

한국말과 한국혼

조용히 문 언 國語研究所에의 期待

「목이 좋습니다」, 며칠 사이를 두고 각 중앙 일간지에 난 전 5단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大學 졸업을 기준으로 나이가 내려올수록 이를 「목이 좋습니다」로 읽는 청소년이 많았다. 간혹 「좋습니다」로, 적힌 대로 읽는 젊은이도 있었지만, 그것은 곧 어색한 우리말이 된다. 「좋습니다」라는 말에는 우선 그 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어 교육—국어 사용 문제에서 벗어난 두드러지게 잘못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교황님의 사탕이 비가 되어 나리고 있다」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떠나보내는 날(5월 6일)을 읊은 한 元老詩人의 詩의 첫 구절이었다. 1933년 朝鮮語學會가 공포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제정에 따라, 그때까지 「나리다」로 쓰던 말이 「내리다」로 표준화했다. 詩人은 「내리다」라는 표준말보다는 더 굳이 보수적인 「나리다」를 썼고 詩에서는 시인의 주관에 따라 그렇게 쓰일 수 있다.

말은 보수적인 면과 개방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文字言語는 더 보수적인 한면을, 音聲言語는 더 개방적인 한면을 갖게 된다. 言衆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音聲言語는 그 개방성으로 말미암아 잡다해지고 무질서해질 수 있다. 좋습니다가 「좋습니다」로 잘못 표기되고 「중습니다」로 잘못 임혀지는 병폐가 보편화하는 것도 그런 현상 중의 하나인 것이다.

반면 한 나라의 말이 너무 보수적인 측면을 고수하다 보면, 言衆의 물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살아있는 말의 대세와 동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알맞게 다듬고 다 잡아야 할 國語研究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큰 뜻이 거기에 있다. 5월 10일, 마침내 國語研究所가 문을 열었다. 서울 安國동 어느 빌딩의 27평되는 사무실, 1억 4천만원의 84년도 예산액, 14명의 운영위원, 소장 아래 연구원 4명, 조서원 6명이라는 기관의 규모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된 難産 끝에 그나마 대견한 新生兒를 보는 듯한 반가움이 앞선다. 우리나라 語文정책은 文敎部의 비상설기구인 국어심의회가 맡아 오다가 79년 기구가 학술원으로 흡수되었고, 76년에는 문교부 직속의 國語研究院을 설치한다는 발표만이 있었다. 83년 10월 소요예산 1억 4천만원의 책정을 계기로 84년 1월 開所가 예고되었으나, 결국 4개월 남짓이 늦어진 셈이다. 83년 11월 문교부가 마련한 國語研究所 운영계획은 「대학교수 및 각급학교 교사 14명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4개의 연구실을 둔다고 했었다.

각 연구실은 ① 국어의 발달—고어—현대 국어의 음성—문자—문법—어휘 체제—표현 전달—방언—北韓의 국어 정책 ② 맞춤법—표준말—새 어휘 개발—외래어 표기—한글 로마자화 ③ 국어 한문 교육—한자略字 ④ 사전 편찬 간행—학술 전문용어의 통일 등에 대한 일을 연구—조사—담당한다고 했다. 모두 우리 국어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들이다.

金亨奎 초대 소장도 「언어에는 일종의 췌이 있다」는 말을 했다. 한국어에는 한국인의 췌이 있다. 국어를 연구하고 다듬어 빛내는 일은 한국인의 혼을 다듬어 빛내는 일이다. 거듭 難産 끝에, 너무나 조용한 순산처럼 문을 연 國語研究所의 연구활동이 무럭무럭 日就月將할 것을 바라며, 더욱 政府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投資를

당부한다.

(조선일보 社說, 1984. 5. 12)

국어연구소 설립 일지

- ~1983
문교부, 국어연구소 설치를 검토.
- 1983. 4. 21
민정당 구용현 의원의 어문정책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문교부 장관이 學術院 내에 國語研究院(假稱)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1983. 5. 11
문교부에서 學術院 내에 國語研究所를 附設 運營하는 방침의 國語研究所 設置計劃을 學術院에 송부.
- 1983. 5. 17
學術院 人文科學部 第二分科會議(이하 제 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를 學術院 내의 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함.
- 1983. 5. 24
學術院 소위원회에서 '84년도 사업 계획 논의.
- 1983. 6. 18
문교부에 학술원 내에 국어연구소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983. 10. 6
정부 예산 중 국어연구소의 보조금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학술원 안에 語文研究所를 설치하기로 함.
- 1984. 1. 21
제 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학술원 내에 非公式 機構인 국어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함.
- 1984. 2. 25

제 2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시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

• 1984. 3. 3

학술원 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안)을 심의 통과.

• 1984. 3. 9

국어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運營委員會를 구성.

• 1984. 3.16

제 1차 運營委員會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통과 및 초대 연구소 소장으로 金亨奎 學術院 元老會員을 선임하고 연구소 사업 세부 계획을 확정함.

• 1984. 4. 21

전임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함.

• 1984. 4. 26

문교부로부터 '8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462만원을 보조받음.

• 1984. 5. 10

국어연구소 개소.

연구소 직원 및 운영위원 명단('84년 7월 현재)

<직원명단>

소 장 : 金亨奎

연구원 : 朴敏圭, 柳東碩, 安明哲, 金重瑞

조사원 : 金永珠, 金燕順, 閔庚善, 李美羅, 權美珍, 金希貞

사무원 : 鄭京姬, 李 恩

<운영위원명단>

위원장 : 沈鍾燮(學術院 會長)

부위원장 : 金亨奎(國語研究所長, 學術院 元老會員)

위원 : 趙璣濬(學術院 副會長), 林漢永(學術院 人文科學部 會長), 金

玉準(學術院 自然科學部 會長), 趙成植(學術院 人文第2分科 會長), 李崇寧(學術院 元老會員), 李基文(學術院 正會員), 金完鎭(學術院 正會員), 金敏洙(高麗大學校 教授), 金聖培(東國大學校 教授), 南廣祐(仁荷大學校 教授), 許 雄(한글학회 이사장), 李英敎(文敎部 將學室長), 姜基洪(學術院 事務局長)

국어연구소 관련기사 목록('83년 5월 이후)

순서	제 목	일 자	지 명
1	「國語研究院」을 세우자	1983. 5.21	동아
2	국어研究院(社說)	1983. 5.21	중앙
3	「국어研究院」건의(社說)	1983. 5.21	동아
4	말이 먼저 醇化되어야 社會도 맑아져(李熙昇)	1983. 5.23	중앙
5	국어研究, 왜 統一된 기관 없나	1983. 5.27	한국
6	國語연구소 開設	1983.10. 7	한국
7	國語연구소 내년 設立	1983.10. 7	조선
8	語文研究 1億 4千萬원(社說)	1983.10. 8	한국
9	초라한 出帆「語文 연구소」	1983.10.12	동아
10	국어 연구소 10일 開所	1984. 5. 1	서울
11	오늘 開所하는 國語연구소 金亨奎 初代 소장에게 듣는다.	1984. 5.10	한국
12	국어연구소 문 열어	1984. 5.11	서울
13	國語연구소 初代 소장 金亨奎 박사	1984. 5.11	동아
14	國語연구소 初代 소장 金亨奎 박사	1984. 5.11	서울
15	한국말과 한국魂—조용히 문 연 國語研究所에의 期待(社說)	1984. 5.12	조선
16	통일되는 敎育用 文法(社說)	1984. 5.13	서울
17	학교 문법 統一案(社說)	1984. 5.14	동아
18	國語 文法(社說)	1984. 5.15	조선
19	金亨奎 초대 국어연구소장과의 對話	1984. 6	월간조선 6월호
20	마지막 奉仕로 半生 국어연구 매들	1984. 5.20	한국경제
21	國語 실태 본격 調査 착수	1984. 7.25	한국